백캉스·마캉스… 폭염에 웃는 유통업계

〈백화점·마트+바캉스〉

복합 쇼핑몰 피서지로 인기…광주신세계·롯데백화점 매출 ↑
유스퀘어 식당가·영화관 연일 북적…에어컨 매출 전년비 두배

펄펄 끓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暴炎)이 반영된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는 데 생활의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소비가 '실내, 온라인'에 집중되는가 하면, 더위를 식히는 대표 냉방가전인 에어컨 판매량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반갑다, 무더위!=무더위를 식히기 위한 가전(家電)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에어컨 매출은 1년 전보다 105.2% 뛰었다. 지난 2016년 같은 기간에 견줘 200%나 늘었다는 게 백화점측 설명이다.

백화점 뿐 아니다. 광주지역 17개 하이마트의 에어컨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8.7% 늘었다.

대유위니아와 대우전자의 에어컨은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16일 하루에만 7000대가 넘게 팔렸다.

대유위니아 에어컨은 최근 3일(14~16일)간 판매량이 1년 전에 비해 158%나 급증했다. 벽걸이형 에어컨은 122% 늘어난 반면, 스탠드형 제품은 389%나 뛰었다는 점에서 무더위에 가격보다 냉방 효율·성능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구매 방식도 엿보인다. 무더위를 피해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주문, 구매하는 지역민들도 급증하고 있다.

◇백화점·마트, 폭염에 미소=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더위를 피해 백화점·복합쇼핑몰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광주 유스퀘어 식당가에는 더위에 노출되는 곳을 피하려는 이용객들이 몰려 점심시간에 긴 줄이 늘어섰고 영화관과 서점에도 인파로 북적댔다. 금호터미널 관계자는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유스퀘어와 백화점 등을 찾는 이용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백화점업계도 이른바 에어컨을 튼 실내에서 '백캉스'(백화점+바캉스)를 즐기려는 '에어컨 유목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백화점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면서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전체 매출이 지난해보다 6.3% 증가했고 지하 식당가 매출도 이 기간 10.6%나 뛰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전체 매출은 7%, 전문 식당가 매출은 14.3%나 올랐다.

에어컨 매출에 수분크림과 시원한 소재의 여름철 의류를 찾는 고객이 늘면서 매출로 이어졌다는 게 백화점 관계자 설명이다.

◇피하는 게 상책=낮에는 폭염 특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은 "시원한 회사가 낫다"며 일찍 출근하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은 방학에도 에어컨을 틀어주는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 인근 35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은 무더위를 피해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공사 시간을 조정했다. 또 제빙기를 빌려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공사장 인력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도 방학을 맞아 집 대신 에어컨을 틀어주는 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삼계탕으로 무더위 이겨내세요" 동구노인복지관 배식봉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5일 동명동에 위치한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복을 이틀 앞두고 광주은행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 600인분을 어르신들께 점심식사로 대접했다.

이날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동구지역 광주은행 지점장, 직원 30여명이 함께 했으며, 임택 동구청장도 봉사활동에 함께 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에서도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후원금을 전달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초복에 이어 중복에도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직원들과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나눔 봉사의 아름다운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

기업 감리·中 짝퉁 백신 파동에 바이오·제약주가 '뚝'

코스피 셀트리온 -5.28%·삼성바이오로직스 -5.36%

바이오·제약주가 연이어 터진 악재에 곤두박질치면서 코스닥이 740선 후반대까지 밀려나면서 연중 최저점을 갱신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도 공세에 25일 7.17포인트(0.31%) 하락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2.68포인트(1.66%) 내린 748.89에 장을 마치며 2거래일 만에 연저점을 갱신했다. 달러/원 환율은 8.9원 내린 1126.3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5.78%), 메디톡스(-3.67%), 신라젠(-7.95%), 바이로메드(-5.24%), 셀트리온제약(-4.93%), 코오롱티슈진(-5.71%) 등 대표적인 바이오주들이 큰 폭으로 내렸다. 당분간은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있어 투자자들의 한숨만 커지는 양상이다. 코스피시장에서도 셀트리온(-5.28%)과 삼성바이오로직스(-5.36%)가 동반 하락했다.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이슈만 해도 금융당국의 심의는 일단락됐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테마 감리를 벌이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금감원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 현재 감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는 가짜 백신 사태가 터졌다. 생산 기록 조작 등으로 불법 제조한 백신이 대거 유통됐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중국 증시에서는 헬스케어 전체가 급락했고 국내 증시도 투자심리가 한층 더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73.03 (-7.17)	↓ 금리(국고채 3년) 2.08 (-0.01)
↓ 코스닥 748.89 (-12.68)	↓ 환율(USD) 1126.30 (-8.90)

광주세관, 해외 여행객 반입물품 집중단속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8월 19일까지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의 휴대물품에 대해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검역대상 수입제한물품의 반입을 점검하고 자진신고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1병 1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또한 검역대상 수입제한물품은 열대과일(망고, 바나나, 망고스틴, 용과), 종자류(콩, 무, 호박, 오이, 고수), 채소류, 식육가공품(육포) 등이다.

특히 무심코 국내에 반입한 현지 과일 등은 외래 병해충을 유입시킬 수 있어 해당기관에 신고·인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이번 점검기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X-Ray 영상판독훈련을 실시하며 여행자들에게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와 반입제한품목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광주경총, 오늘 근로시간 관리 설명회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6일 오후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근로시간 관리 원스톱 체크포인트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노무관리방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사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 관리 매뉴얼을 기업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기업별 상황에 따른 생산성 혁신 방안으로 17개 과제를 4대 액션플랜으로 제안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사진)는 25일 농협중앙회 '상반기 종합경영분석회의'에서 광역시 단위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해 '1위 달성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협 광주본부는 농협의 역점사업인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벼 직파재배를 33ha 확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11개까지 확대했다. 또 애플수박 등 신소득 작물 육성과 5059명의 영농인력을 공급하는 등 올해 상반기 17억5000만원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다.

특히, 농축산물 판매 886억원을 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쌀 경쟁력 강화사업, 농산물 반가공사업, 미생물 활용 컨설팅 등을 벌이는 등 9억3000만원의 협력사업을 펼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기웅 기자 pboxer@